

한국판 FFNI-SF의 요인구조 탐색: 자기애 3요인 모형을 중심으로

김 성 령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 학생

이 기 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애의 구성개념을 통합적 관점에서 제시한 성격 5요인 자기애 척도-축약형(Five Factor Narcissism Inventory-Short Form, FFNI-SF)을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요인구조를 탐색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전국 대학생 271명을 대상으로 한국판 FFNI-SF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번째로 서울 소재 대학생 277명을 대상으로 수렴, 변별 및 공존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FFNI-SF은 과시적 자기애(OS-N), 평가적 자기애(EV-V), 특권적 자기애(EN-N)의 3요인 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렴 및 변별타당도 검증을 위해 FFNI-SF 요인들과 기존 자기애 척도들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EN-N은 모든 척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OS-N은 웅대성을 측정하는 척도와 EV-N은 취약성을 측정하는 척도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자기애를 성격 차원의 통합적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공존타당도 검증을 위해 자존감과 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명시적 자존감은 EN-N과 정적상관을, EV-V과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OS-N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자기애의 하위유형이 보이는 자존감 기저에 작동하는 성격 역동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 연구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FFNI-SF, 자기애, 성격 5요인 자기애 척도, 자기애 3요인 모형, 웅대성, 취약성, 자존감, ESEM

[†] 교신저자 : 이기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0372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Tel : 02-2123-2445, E-mail : khlee2445@yonsei.ac.kr

현대사회는 자기애의 시대라 불려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공유하고 그에 대한 찬사의 댓글 등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대인들의 삶이 되었으며, ‘자기 PR의 시대’라 불릴 만큼 자신의 모습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현대인들로 하여금 자기애적 문화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Buffardi & Campbell, 2008; Tyler, 2007). 한국 사회도 집단과 협력에서 개인과 경쟁을 강조하는 사회로 변화하면서 자신을 사랑하고 과시하는 모습이 만연해졌다(Lee, Benavides, Heo, & Park, 2014). 적응적인 자기애는 현실적 자기평가에 근거하여 안정적인 자존감을 가지도록 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강선희, 정남운, 2002; Rhodewalt & Tragakis, 2003). 그러나 자신을 지나치게 과시하며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갈망하게 될 경우,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깊은 좌절과 우울, 적대감과 분노 등 극단적인 부정정서를 경험할 수 있고(양진원, 권석만, 2016; Stucke & Sporer, 2002), 자신의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 남을 폄하하거나, 대인관계에서도 공감결여나 착취적인 모습을 보여 좋았던 첫인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으로 변하는 등 부정적인 특징을 보일 수도 있다(Park & Colvin, 2015).

자기애는 고대 나르키소스(Narcissus) 신화와 연관 지어 등장한 아주 오래된 심리 구성요인이지만, 그 용어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Kernberg, 1998). 학자들에 따라서는 자기애를 부모의 부적응적 양육 태도에 의해 건강한 자기를 발달시키지 못하는 경우 취약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웅대한 환상을 가지게

되는 심리발달의 과정으로 여기거나(Kernberg, 1998; Kohut & Wolf, 1978), 자기도취와 특권의식에 빠져 과시적이고 은근히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는 비정상적인 성격특성으로 설명하는 등(Millon, 1998; Ronningstam, 2005) 다양하게 정의해 왔으나 구성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십 년 동안 자기애에 대한 논쟁이 활발히 이루어졌다(Brown, Budzek, & Tamborski, 2009). 그 결과, 자기애를 하나의 단일개념으로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많은 자기애 연구에서는 질적으로 구분된 두 가지 형태인 웅대성(grandiosity)과 취약성(vulnerability)이 포함된다는 공통적인 견해를 밝혔다(Cain, Pincus, & Ansell, 2008; Miller & Campbell, 2008). 두 하위유형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웅대성은 과장된 자기상, 특별한 대우에 대한 갈망, 성공이나 권력에 대한 공상 등을 가지며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착취적이고 지배적인 특성을 보인다(한수정, 2016; Pincus & Lukowitsky, 2010). 한편, 취약성은 웅대한 자기상이나 특권의식이 위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러한 양상을 내면 깊은 곳에 지니고 있다. 즉,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거나 자기 확신이나 주도성이 부족하고, 자기상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 즉 타인의 평가에 굉장히 예민하고 취약한 특성을 가진다. 또한, 우울, 불안, 수치심 등 부정정서를 강하게 느끼며 대인관계에서 다소 적대적이거나 수동적인 특성을 보인다(한수정, 2016; Miller, Lynam, Hyatt, & Campbell, 2017; Pincus et al., 2009).

그러나 두 유형이 다양한 측면에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자기애의 역설(narcissistic paradox)로 불리기도 하였는데(Morf & Rhodewalt, 2001), 예를 들어 웅대성의 경우 외

향성, 높은 자존감, 활발한 사회성, 강한 주장성을 보이는 반면, 취약성의 경우 내향성, 낮은 자존감, 사회적 철수, 우울 및 불안 등 강한 부정정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Miller & Campbell, 2008; Miller et al., 2011; Wink, 1991).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웅대성이 높은 집단과 취약성이 높은 집단 간 특성의 차이가 나타나 두 유형이 서로 다른 군집분포를 보여주고 있다(박창현, 장유진, 2021; 황선정, 조성호, 2016; Crowe, LoPilat, Campbell, & Miller, 2016). 따라서 두 하위유형이 어떻게 자기에라는 단일한 개념으로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자기에를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Miller & Campbell, 2008; Pincus & Lukowitsky, 2010; Thomas, Wright, Lukowitsky, Donnellan, & Hopwood, 2016). Crowe와 Miller(2017)은 자기에의 두 하위유형이 성격 차원에서 적대감을 핵심 특성(core feature)으로 공유하면서 동시에 외향성이 높으면 웅대성이, 신경증이 높으면 취약성이 표현된다고 설명하면서 ‘자기에 3요인 모형(the Three-Factor Model of Narcissism)’을 제안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Krizan과 Herlache(2018)도 ‘자기에 스펙트럼 모형(the Narcissism Spectrum Model)’을 제시하면서 자기에가 자기 중요성을 핵심으로 하면서 접근기질-회피기질에 따라 웅대성과 취약성으로 발현된다고 주장하였다.

자기에의 개념을 두 하위유형이 공유하는 하나의 핵심 특성(core feature)과 각 하위유형을 발현시키는 두 개의 부차적 특성(peripheral feature)으로 설명하는 것은 단순히 웅대성과 취약성으로만 구분했을 때 발생하는 한계를 보완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웅대성-취약성 차원의 구분은 자기에 성향이 보이는

행동, 사고, 정서적 특성이나 증상을 기반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구분기준이 다소 광범위하였고, 유형 간 나타나는 이질적 상관관계의 해석이 모호하여 단일한 자기에로서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 어려웠다(Smith, McCarthy, & Zapolski, 2009). 그러나 자기에의 구인을 성격과 같은 동질적 기준에서 세분화하게 될 경우, 웅대성과 취약성이 공유하는 핵심 특성과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제시하여 자기에 설명에 명확성을 더할 수 있고, 자기에 측정에서도 정밀성을 높여주는 이점이 있어 자기에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Crowe, Lynam, Campbell, & Miller, 2019).

이러한 구성개념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측정 도구의 개발로도 이어졌으며 자기에 연구에 또 다른 혼선을 가져왔다(Krizan & Herlache, 2018). 대표적으로 자기에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자기에적 성격검사지(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의 경우, 특권의식이나 착취 등 자기에적 웅대성 측면만을 측정하여 취약성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Cain et al., 2008; Pincus & Lukowitsky, 2010). 이러한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Hendin과 Cheek(1997)이 과민성 자기에 척도(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HSNS)를 개발하였으나, HSNS 역시 다른 사람의 평가나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취약성만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렇듯 자기에 관련 연구에서 활용된 척도들은 자기에의 구성개념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 측면만을 측정하여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자기에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Pincus & Lukowitsky, 2010; Wright & Edershire, 2018)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함께 다차원적 속성을 함께

반영하는 척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Pincus 등 (2009)이 웅대성과 취약성을 모두 포함하는 도구로 병리적 자기애 척도(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NI)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두 유형 간 상관이 너무 강하고 웅대성 항목들이 웅대한 측면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등 PNI 역시 자기애의 취약하고 병리적 특성에 지나치게 치우친 것으로 밝혀져 척도의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웠다(Thomas et al., 2016; Wright, Lukowitsky, Pincus, & Conroy, 2010). 그 외에 Back 등(2013)도 자기애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Narcissistic Admiration and Rivalry Questionnaire(NARQ)를 개발하였다. NARQ의 이론적 배경은 자기애 성향이 웅대한 자기상을 보호하는 동일한 목표에 대해 적극적 자기표현과 적대적 자기방어 가운데 어떠한 전략을 활용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가정한다. 하지만 NARQ은 자기애의 웅대한 측면에 초점을 두어 오히려 취약한 부분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진다(Krizan & Herlache, 2018).

자기애를 측정하기 위한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다차원성 뿐만 아니라 정상과 병리를 모두 통합적으로 측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Glover, Miller, Lynam, Crego와 Widiger(2012)이 개발한 성격 5요인 자기애 척도(Five-Factor Narcissism Inventory, FFNI)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FFNI는 성격장애를 임상적이고 병리적 특성만 분리하여 진단하려는 범주형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차원적 접근(APA, 2013)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성격 5요인 모형(FFM; McCrae & Costa, 1987)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이들은 자기애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의 성격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

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기애와 성격 5요인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FFNI는 성격의 주요한 5가지 요인과 각 요인을 설명하는 6개 하위요인(facet)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가 의견과 메타분석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30개 하위요인 가운데 15개가 자기애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자기애의 구성개념으로 정의하였다.

Glover 등(2012)은 15개 하위요인과 관련하여 문항내용을 구성하고 타당도를 검증하여 최종적으로 148문항을 선정하였으며, Sherman 등 (2015)이 다시 60문항으로 단축하여 성격 5요인 자기애 척도 축약형(Five-Factor Narcissism Inventory Short-Form, FFNI-SF)를 완성하였다. 이후 진행된 타당도 연구에서는 FFNI 하위요인과 기존에 존재하는 자기애 측정 도구들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15개의 요인마다 자기애적 웅대성과 취약성과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함으로써 FFNI가 웅대성-취약성 차원을 측정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도 하였다(Miller, Gentile, & Campbell, 2013; Miller et al., 2013). 한편, Miller 등(2016)은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FFNI의 15개 하위요인이 세 개의 고차요인(higher-order factor)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FFNI의 하위요인이 단순히 웅대성과 취약성의 두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는 3요인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다. 도출된 요인들은 포함하고 있는 하위요인의 특질을 반영하여 명명되었으며, 구체적 요인구조는 다음과 같다. 찬사추구(Acclaim-Seeking), 권위(Authoritativeness), 과시(Exhibitionism), 웅대한 환상(Grandiose Fantasies)은 ‘외향성(Agentic Extraversion)’, 무관심(Indifference), 인정욕구(Need for Admiration),

수치심(Shame)은 ‘신경증(Neuroticism)’, 거만(Arrogance), 불신(Distrust), 특권의식(Entitlement), 착취(Exploitativeness), 공감결여(Lack of Empathy), 조종(Manipulativeness), 자극추구(Thrill-Seeking)는 ‘적대감(Antagonism)’.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FFNI의 3요인과 기존 척도와와의 관계를 확인하여 척도의 타당성을 입증하였으며, 두 유형으로 표현되는 자기에의 기저에서 작동하는 특성을 밝히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적대감은 모든 자기에 척도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외향성은 웅대성 척도와 정적상관을 가졌으나 취약성 척도와는 대부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경증은 취약성과 정적상관을 가진 반면 웅대성 척도와는 유의하지 않았다(Crowe et al., 2019; Miller et al., 2016; Miller, Lynam, & Campbell, 2016; Rogoza, Ciecuch, Strus, & Kłosowski, 2021). 종합하면, FFNI의 고차요인 구조를 통해 자기에가 적대감을 핵심으로 외향성과 신경증에 따라 각각 웅대성과 취약성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기에 3요인 모형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였다(Crowe & Miller, 2017).

FFNI의 개발은 기존의 자기에 척도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면서 자기에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Crowe & Miller, 2017; Miller, et al., 2016; Miller et al., 2017). 또한, 성격의 차원적 특성을 반영하여 자기에를 정상과 병리의 연속선상으로 바라보고 웅대성과 취약성, 그리고 성격장애의 병리적 측면까지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어 기존 척도들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Crowe et al., 2019; Weiss & Miller, 2018). 이와 더불어 FFNI는 자기에 구성개념에 대해 적대감, 외향성, 신경증의 3요인 모형을 제시하

여 자기에의 성격 역동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Glover et al., 2012; Sherman et al., 2015; Miller et al., 2016).

FFNI의 요인구조와 척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여러 문화권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터키에서는 문항에 기반하여 15개 하위요인의 구성타당도 및 성격 5요인과의 공존타당도를 입증한 바 있으며(Eksi, 2016), 이탈리아와 폴란드에서는 원척도와 요인구조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세 가지 고차요인이 도출된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다(Fossati, Somma, Borroni, & Miller, 2018; Rogoza et al., 2021). 사회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기고양(self-enhancement) 동기와 독립적 자기해석(independent self-construal)의 경향이 지배적인 반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자기개선(self-improvement) 동기와 상호의존적 자기해석(interdependent self-construal)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eine & Hamamura, 2007; Markus & Kitayama, 1991). 이와 더불어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특성은 자기에적 웅대성과 강한 정적상관을,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받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특성은 자기에적 취약성과 강한 정적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Jauk, Breyer, Kanske, & Wakabayashi, 2021; Rohmann, Neumann, Herner, & Bierhoff, 2012). 즉,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기에적 웅대성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자기에적 취약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자기에 형성과 발달에 있어 문화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FFNI 역시 문화적 특성이 반

영되었을 때 다른 요인구조를 보일 수 있다. 또한, 개인과 경쟁을 강조하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자기에 성향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자기에 구성개념 및 요인구조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표본을 대상으로 FFNI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여 국내에서도 자기에 3요인 모형이 지지됨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고 본 척도가 한국인에게도 타당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herman 등(2015)이 60 문항으로 단축한 FFNI-SF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국내에서도 3요인이 확인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척도가 기존 검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성을 제대로 측정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FFNI가 FFM를 토대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성격 5요인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성격 차원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Glover et al., 2012). 또한,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존 자기에 척도들 가운데 웅대성을 측정하는 자기에 성격검사지(NPI), 취약성을 측정하는 과민성 자기에 척도(HSNS), 그리고 다차원적 특성을 함께 측정하는 병리적 자기에 척도(PNI)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고차요인 가운데 무엇이 자기에의 핵심 특성(core feature)과 부차적 특성(peripheral feature)인지 검토하고 자기에를 얼마나 통합적으로 잘 설명하는지 확인하였다(Miller et al., 2016). 아울러 공존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자존감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관련된 견해로서(Rosenberg, 1965), 취약한 자기개념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긍정적 반응과

인정을 얻고자 하는 자기에 역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Campbell, Rudich, & Sedikides, 2002; Cooper, 2000).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자기에 적 웅대성의 경우 높은 자존감을 보인 반면, 취약성은 낮은 자존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유형에 따라 자존감 수준이 일관되지 않다고 나타났다(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Miller et al., 2011; Pincus et al., 2009; Sedikides, Rudich, Gregg, Kumashiro, & Rusbult 2004). 이에 Miller 등(2016)은 자존감과 FFNI 3요인과의 관계에서 외향성은 정적상관, 신경증은 부적상관을 가졌으나 적대감은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인함으로써 자존감 수준에 대한 자기에의 성격 역동을 밝혔다. 한편, 정신 역동 이론가들은 자기에 기저에는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는데, 구체적으로 자기에를 무의식적 부적절감과 의식적 우월감의 분열로 이해하였다(Kernberg, 1998; Kohut & Wolf, 1978). 특히 자기 가치에 대한 느낌이 상황에 따라 기복을 보인다는 자존감 불안정성은 명시적 자존감 수준과 상관없이 자기에의 핵심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Ronningstam, 2005). 실제로도 외부 피드백이 주어지는 상황이나 부정적 성취 경험에 자기에 성향자들이 보이는 자존감 변화의 폭이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최정인, 이훈진, 이준득, 2012; Zeigler-Hill, Myers, & Clark, 2010; Rhodewalt & Tragakis,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존감을 구체적으로 명시적 자존감 수준과 자존감 안정성으로 구분하여 FFNI-SF의 공존 타당도를 검증하고, 자존감과의 관계에서 자기에 3요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생명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아 전국에 있는 만 18세 이상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IRB NO: 7001988-202011-HR-1014-03). 우선 한국판 FFNI 척도의 요인구조에 대한 탐색을 위해 외부 설문업체를 통해 국내 대학생 300명으로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과 이상치(outlier)를 제외한 271명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한 316명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과 이상치(outlier)를 제외한 277명의 자료가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연구 참가를 희망하는 대상자에게는 설문에 앞서 연구목적과 중도 참여 포기 가능, 비밀 보장 등에 대한 설명문이 제시되었고 자발적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고 설문을 진행하였다. 최종 선정된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

영역	구분	표본 I (N=271)	표본 II (N=277)	영역	구분	표본 I (N=271)	표본 II (N=277)
연령	평균연령	21.66 (SD=1.85)	21.29 (SD=1.97)	성별	남	108 (39.9%)	114 (41.2%)
					여	163 (60.1%)	163 (58.8%)
학년	1학년	42(15.5%)	71(25.6%)	전공	인문	50(18.5%)	75(27.1%)
	2학년	78(28.8%)	103(37.2%)		사회	31(11.4%)	27(9.7%)
	3학년	71(26.2%)	44(15.9%)		상경	34(12.5%)	48(17.3%)
	4학년	79(29.2%)	49(17.7%)		사범	13(4.8%)	7(2.5%)
	5학년 이상	1(0.40%)	10(3.6%)		자연	21(7.7%)	18(6.5%)
대학 소재	서울	84(31.0%)		공학	77(28.4%)	43(15.5%)	
	경기도	52(19.2%)		의치간호	19(7.0%)	13(4.7%)	
	충청도	42(15.5%)		국제	-	22(7.9%)	
	경상도	68(25.1%)		예체능	16(5.9%)	19(6.9%)	
	전라도	16(5.9%)		기타	10(3.7%)	5(1.8%)	
	강원도	8(3.0%)					

주. 표본 I: 요인구조 분석, 표본 II: 타당도 분석

척도 번안

본 척도를 타당화 하기에 앞서, FFNI-SF의 주 개발자인 Donald R. Lynam과 Joshua D. Miller로부터 번안 타당화 허락을 받아 번역을 진행하였다. 우선 일차적으로 본 연구자와 심리학 박사과정생 1인이 문항 내용을 번역하였으며, 이후 미국에서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여 이중언어가 가능한 심리학 석사과정생 2인이 다시 영문으로 역번역을 실시하였다. 의미가 명확하고 이해가 용이하면서도 원칙도와 유사한 문항을 완성하기 위해 다년간 외국에서 거주한 심리학 전공 석사과정생 2인이 유사성 평정을 하였다. ‘전혀 일치하지 않음(1)’과 ‘완전히 일치함(5)’ 사이에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나는 내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남들을 잘 설득한다’와 같이 3점 이하의 평가를 받은 문항은 다시 번역·역번역 검토과정을 거쳐 ‘나는 무슨 일이든 내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로 수정하여 최종 문항들을 결정하였다.

측정 도구

성격 5요인 자기에 척도 (Five-Factor Narcissism Inventory Short-Form, FFNI-SF)

Glover 등(2012)이 개발한 148문항을 Sherman 등(2015)이 60문항으로 축약한 것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성격 5요인(Five-Factor Model)의 관점에서 자기에 성향을 차원 모형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개발되었다. 성격 5요인을 구성하는 하위요인(facet) 30개 가운데 자기애적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15개의 하위요인을 추출하였다. 하위요인마다 4개의 문항씩 총 60문항으로 구성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1)’와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Glover 등(2012)은 원칙도를 개발하면서 하위요인의 조합에 따라 자기애의 두 가지 유형인 자기애적 웅대성과 자기애적 취약성이 구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기애적 웅대성은 ‘찬사추구(Acclaim-Seeking; AS)’, ‘거만(Arrogance; ARR)’, ‘권위(Authoritativeness; AUTH)’, ‘특권의식(Entitlement; ENT)’, ‘과시(Exhibitionism; EXH)’, ‘착취(Exploitativeness; EXP)’, ‘웅대한 환상(Grandiose Fantasies; GF)’, ‘공감결여(Lack of Empathy; LOE)’, ‘조종(Manipulativeness; MAN)’, ‘무관심(Indifference; IND)’, ‘자극추구(Thrill-Seeking; TS)’의 11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자기애적 취약성은 ‘불신(Distrust; DIS)’, ‘인정욕구(Need for Admiration; NFA)’, ‘반응적 분노(Reactive Anger)’, ‘수치심(Shame; SHM)’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한편, Miller 등(2016)은 요인분석을 통해 15개의 하위요인이 다시 ‘적대감(Antagonism)’, ‘외향성(Agentic Extraversion)’, ‘신경증(Neuroticism)’의 세 가지 고차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FNI-SF 고차요인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Sherman 등(2015)의 연구에서 웅대성 .94와 취약성 .85로 나타났으며, Miller 등(2016)의 연구에서는 적대감 .92, 외향성 .90, 신경증 .8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일치도는 결과에 제시하였다.

간편형 성격 5요인 검사(Big Five Inventory, BFI)

John과 Srivastava(1999)가 개발한 것을 김지현, 김복환, 하문선(2011)이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BFI는 개방성(Openness), 성실성

(Conscientiousness), 외향성(Extraversion), 친화성(Agreeableness), 신경증(Neuroticism)의 5개 요인의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와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상에서 평정된다. 김지현 등(2011)의 연구에서 보고된 요인별 내적 일치도는 개방성 .83, 성실성 .75, 외향성 .74, 친화성 .67, 신경증 .7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개방성 .89, 성실성 .78, 외향성 .81, 친화성 .69, 신경증 .79로 나타났다.

자기에적 성격검사지(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

Raskin과 Hall(1981)이 DSM-III의 자기에성 성격장애 진단기준에 근거하여 개발한 척도로서, 일반인들의 성격특성으로서의 웅대하고 외현적인 자기에 경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Raskin과 Terry(1988)에 의해 기존의 54문항을 40문항으로 단축한 것을 국내에서 한수정(1999)이 번안하였으며, 이후 정남운(2001b)이 NPI의 요인구조를 분석하여 기존의 40문항에서 8문항을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남운(2001b)의 32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두 가지 문항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는 이분법적 강제선택형이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에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남운(2001b)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과민성 자기에 척도(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HSNS)

본 연구에서는 과민성 자기에 척도(HSNS, Hendin & Cheek, 1997)를 국내에서 정남운(2001a)가 번안 타당화한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HSNS는 Murray(1938)

가 자기에적 사람들에게서 상호 모순된 경향, 즉 한편에서는 자신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사람의 평가와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2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에 척도(Murray’s Narcissism Scale)를 토대로 개발되었다. 20문항 가운데 내현적인 자기에를 측정하면서 MMPI 척도들과 높은 상관을 보인 10개 문항을 선별하여 HSNS가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와 ‘매우 그렇다(5)’의 5점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남운(2001a)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2로 나타났다.

병리적 자기에 척도(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NI)

Pincus 등(2009)이 병리적 자기에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척도로, 국내에서는 양진원과 권석만(2016)이 번안 타당화 하였다. PNI는 자기에적 웅대성과 자기에적 취약성의 두 차원으로 구분되며, 각 차원은 다시 세 개의 하위 요인, 즉, 착취, 웅대한 환상, 자기고양-자기희생 (이하 자기에적 웅대성)과 변동하는 자존감, 특권분노, 평가절하 (이하 자기에적 취약성)의 3개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나같지 않다(0)’와 ‘매우 나같다(5)’의 6점 척도상에서 평정된다. 양진원과 권석만(2016)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92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 자기에적 웅대성 .92, 자기에적 취약성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 .93, 자기에적 웅대성 .85, 자기에적 취약성 .94로 나타났다.

Rosenberg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

Rosenberg(1965)가 개발한 척도로 자기개념의 특정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반적인 자존감을 측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 타당화 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의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와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이훈진과 원호택(1995)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치도가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 안정성 척도(Stability of Self-Esteem Scale, SSES)

장재원과 신희천(2011)이 시간과 상황에 걸친 자존감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 자존감 척도 및 경험적인 방법에 기초하여 개발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단일요인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와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안정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재원과 신희천(2011)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0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FFNI-SF의 요인구조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SPSS 25.0를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Mplus 7.4를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과 탐색적 구

조방정식 모형(Exploratory Structural Equation Model: ESEM)을 실시하였다.

우선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자료인지 확인하기 위해 표본 적합도 지수인 KMO (Kaiser-Meyer-Olkin)와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직관적인 방법인 고유치(Eigen value)와 스크리 검사(scree test)를 확인하였으며, 주관성이 높다는 해당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Horn(1965)의 평행분석(parallel analysis: PA)를 실시하였다. 한편, 원척도는 경험적 근거를 토대로 하위요인(facet)이 구성되었고 각 하위요인에 적합한 내용으로 문항이 개발되었으므로, 선행연구에서는 척도의 요인구조를 명료하게 밝혀내기 위해 문항에 기반하기보다 하위요인 단위에서 요인 추출을 시도하였다(Fossati et al., 2018; Miller et al., 2016; Rogoza et al.,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15개 하위요인에 대한 요인 추출을 시도하기에 앞서 60문항에 대한 예비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이후 직관적 논리에 의해 추출된 요인 개수에 대해 통계적 논리에 기반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모형 적합도를 추정하였다. 모수 추정방법으로는 서열척도의 경우 5점 척도 이상일 때 연속변수에 근사한다는 주장(Bovaird & Koziol, 2012)을 따라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회전방법으로는 요인 간 상관을 허락하며 복잡군집해를 다루기에 용이한 사각 회전방식인 GEOMIN을 적용하였다(이순목, 윤창영, 이민형, 정선호, 2016).

한편, 요인과 지표변수가 많고 이론적으로 구분되나 통계적으로는 복잡한 구조를 갖는 사회과학 분야의 자료들에서는 적절한 요인 수가 추출되지 않고, 구분되어야 할 지표변수들이 동일 요인으로 묶이며, 의도하지 않은

다른 요인에 대해 높은 요인 부하를 가져 이중 적재(double loading)가 발생하는 등 사전 가설을 반영하지 못하여 추출된 요인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임경민, 김수영, 2019; Pett, Lackey, & Sullivan, 2003). 이러한 전통적 요인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 해석 가능성과 모형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 이후 목표회전(target rotation)과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ESEM)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목표회전은 일부 요인 부하 모수를 연구자가 설정한 가설에 맞게 0에 가깝도록 제약하고 나머지 값만을 자유모수로 추정하는 회전방법이며, ESEM은 목표회전의 결과로 제시된 측정오차 간 상관에 대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 MI)를 검토하고 이를 자유모수로 추정하여 적합도를 향상시키는 모형 수정방법이다(김수영, 2016). 데이터 구조가 충분히 안정적이라면 확인적 요인분석의 대안으로 측정모형을 유연하게 탐색할 수 있는 ESEM이 제안된다(이순목 등, 2016). 본 척도는 하위요인(facet)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고차요인으로 구분되는 다소 복잡한 구조를 가지므로 목표회전과 ESEM을 적용하는 것이 정확한 요인구조를 탐색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척도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와 공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새로운 표본에서 관련 변인 간의 상관을 확인하였다. 우선 수렴 및 변별타당도의 경우 기존에 자기애를 측정하던 자기애적 성격검사지(NPI), 과민성 자기애 척도(HSNS), 병리적 자기애 척도(PNI)와 FFNI-SF의 고차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공존 타당도의 경우 외적 준거인 자존감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한국판 FFNI-SF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에 앞서, 번역된 60문항에 대한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SPSS 25.0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왜도는 -.776에서 .603, 첨도는 -.918에서 .507사이로 왜도 $\leq |2|$, 첨도 $\leq |7|$ 기준(Kline, 2015)에 부합하여 정규성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MO(Kaiser-Meyer-Olking) 적합성 지수는 .878, Bartlett 구형성 검증 결과 $\chi^2(1770)=9609.480$, $p<.000$ 로 나타나 표본이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요인 수 결정을 위해 60문항에 대한 예비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고유치 차이와 스크리 검사에서는 4요인부터 고유치가 현저히 떨어졌고(고유치 차이: 0.39), 이후로는 감소의 폭이 크지 않아 3개의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누적분산비율이 41%로 사회과학에서 제시하는 적절한 값인 50%를 넘지 못하였다(Merenda, 1997). 한편, 평행분석의 경우 요인구조에서 도출된 고유치가 무선 자료에서 얻은 고유치보다 클 것이라는 논리에 따라(Horn, 1965) 6개의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자료: 1.96, 무선 자료: 1.77).

이렇듯, 문항에 기반하였을 때 요인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며, 척도가 개발된 이론적 근거에 따른 해석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비분석과 동일한 절차로 15개의 하위요인에 대한 요인 추출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스크리 검사와 평행분석에서 요인 수는 3개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누적분산비율이 61%로 나타나 설명량 역시 적절한 것으로 확

표 2. 15개 하위요인(facet)에 대한 고유치, 누적분산비율 및 평행분석 결과 (N=271)

요인 수	실제 자료의 고유치	고유치 차이	분산비율	누적분산비율	무선 자료의 고유치 분산
1	4.44	1.58	0.30	0.30	1.51
2	2.86	1.00	0.19	0.49	1.39
3	1.86	0.87	0.12	0.61	1.30
4	0.99	0.22	0.07	0.68	1.24
5	0.77	0.08	0.05	0.73	1.18

(이하 생략)

인되었다. 이지현과 김수영(2016)에 따르면 개별문항의 특성과 수행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개발이나 타당화 연구에서는 문항묶음(item parcel)의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FFNI-SF를 통해 국내 표본을 대상으로 자기애가 작동하는 성격의 고차원적 요인구조를 확인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연구의 명확성을 위해 선행연구를 따라 문항묶음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후 진행된 분석에서는 요인당 4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계산된 15개의 하위요인을 지표변수로 설정하여 요인구조를 탐색하였다. 하위요인 간의 상관계수는 표 3에 제시되었다.

하위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3요인 모형의 적합도는 $\chi^2(63)=245.095, p<.000$; CFI=.894; TLI=.823; RMSEA=.103; SRMR=.042로 나타났다.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아 영가설을 과도하게 기각하는 χ^2 값의 한계로 인해 대안적인 방법이 함께 고려되는데, CFI와 TLI는 .90 이상이면 적합하다고 평가되며(Kline, 2015), RMSEA와 SRMR은 .08 미만인 경우 괜찮은 적합도로 해석한다(Browne & Cudeck, 1992; Hu & Bentler, 1999).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CFI, TLI, RMSEA는 기준에 근사하지만 다

소 미흡하였고, SRMR은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3요인 모형에 대해 ML로 모수를 추정하고 GEOMIN 회전을 실시하여 나온 형태계수를 확인하였고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측정변수가 적어도 3개 이상이며(Zwick & Velicer, 1986), 요인 부하가 .3~.4 이상일 때 해석 가능한 크기(Kang, 2013)일 때 요인구조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요인에 8개, 두 번째 요인에 5개, 세 번째 요인에 5개의 지표변수가 포함되며 .40~.88의 적절한 요인부하량을 나타냈다.

요인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인 1은 찬사추구, 권위, 과시, 웅대한 환상 등 원척도의 외향성에 속했던 하위요인을 포함하면서도 거만, 특권의식, 조종, 자극추구와 같은 원척도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 하위요인도 함께 포함하고 있었다. 요인 2는 원척도에서 신경증의 하위요인이었던 무관심, 인정욕구, 수치심을 포함하면서 추가로 반응적 분노도 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요인 3은 원척도의 적대감에 해당하는 불신, 착취, 공감결여로 묶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를 종합하면, 일부 하위요인이 원척도 요인분석 결과와는 다른

표 3. 한국판 FFNI-SF 하위요인(facet)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 (N=271)

하위요인	M	SD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AS	3.61	.85	1.00																
2. ARR	2.59	.63	.36**	1.00															
3. AUTH	2.81	.75	.52**	.51**	1.00														
4. DIS	3.18	.68	.09	.11	.011	1.00													
5. ENT	2.44	.68	.31**	.55**	.33**	.15*	1.00												
6. EXH	3.37	.73	.36**	.20**	.40**	-.08	.30**	1.00											
7. EXP	2.34	.85	.22**	.49**	.30**	.36**	.50**	.04	1.00										
8. GF	3.23	.87	.69**	.26**	.43**	.11	.33**	.39**	.26**	1.00									
9. IND	2.41	.88	.11	.21**	.34**	.09	.08	-.13*	.11	.06	1.00								
10. LOE	2.46	.75	.11	.33**	.25**	.31**	.19**	-.27**	.48**	.07	.57**	1.00							
11. MAN	2.50	.79	.42**	.49**	.72**	.10	.42**	.28**	.45**	.39**	.32**	.33**	1.00						
12. NEA	3.43	.64	-.02	-.08	-.25**	.24**	.07	.13*	.15*	.07	-.18**	-.22**	1.00						
13. RA	3.31	.78	.19**	.17**	.07	.31**	.35**	.29**	.28**	.23**	-.24**	-.03	.13*	.42**	1.00				
14. SHM	3.32	.78	-.01	.03	-.17**	.29**	.16**	.15*	.21**	.06	-.46**	-.13*	-.12*	.62**	.56**	1.00			
15. TS	2.54	.71	.30**	.29**	.36**	.13*	.36**	.30**	.40**	.36**	.20**	.18**	.34**	.02	.20**	.09	1.00		

주. AS = 찬사추구; ARR = 거만; AUTH = 권위; DIS = 불신; ENT = 특권의식; EXH = 과시 EXP = 착취; GF = 응대한 환상; IND = 무관심; LOE = 공감결여; MAN = 조종; NEA = 인정욕구; RA = 반응적 분노; SHM = 수치심; TS = 자극추구.

*. $p < .05$ ** $p < .01$

요인에 포함되거나 혼재하는 경우가 존재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기존 결과와 유사한 요인구조를 보였다.

목표회전 및 탐색적 구조방정식

다음으로 사전 가설에 부합하면서도 보다 해석 가능하고 명료한 요인구조를 도출해내기 위해 목표회전을 실시하였다. 우선 하위요인

가운데 거만, 특권의식, 조종, 자극추구는 원척도대로라면 요인3에 묶여야 하는 것들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1에 속했으며, 반응적 분노의 경우에도 원척도에서는 요인3에 포함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2로 묶여 사전 가설과 다소 불일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불신과 무관심의 경우 요인2와 요인3에, 과시의 경우 요인1과 요인3에 걸쳐 유의미한 이중 적재(double loading)를 가졌다. 탐색적 요

표 4. 탐색적 요인분석, 목표회전 및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ESEM) 결과

하위 요인	탐색적 요인분석			목표 회전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1	요인2	요인3
AS	.692***	-.102	-.119	.570***	-.040	.194***	.503***	-.042	.204***
ARR	.522***	-.007	.263***	.283***	-.082	.504***	.290***	-.089	.476***
AUTH	.784***	-.357***	-.006	.639***	-.327***	.279***	.667***	-.325***	.283***
DIS	-.003	.403***	.446***	-.243***	.243***	.535***	-.243***	.245***	.536***
ENT	.537***	.184**	.158*	.301***	.142**	.462***	.295***	.149**	.435***
EXH	.721***	.004	-.509***	.722***	.199***	-.137**	.714***	.208***	-.131**
EXP	.324***	.333***	.551***	-.030	.148***	.776***	-.015	.150***	.761***
GF	.668***	-.005	-.129	.540***	.058	.200***	.465***	.065	.214***
IND	.016	-.505***	.503***	-.093*	-.669***	.355***	-.090*	-.665***	.360***
LOE	-.076	-.037	.880***	-.385***	-.340***	.798***	-.389***	-.344***	.813***
MAN	.685***	-.231***	.164**	.480***	-.264***	.428***	.508***	-.258***	.427***
NFA	.018	.747***	-.085	-.084	.765***	.127**	-.091*	.762***	.129**
RA	.350***	.589***	-.001	.155**	.590***	.327***	.156**	.595***	.326***
SHM	.091	.804***	-.011	-.068	.798***	.249***	-.062	.797***	.247***
TS	.484***	.056	.115	-.294***	.029	.365***	.289***	.038	.355***

주. 음영은 0.40 이상 및 해석 대상이 되는 요인부하계수를 표시함.

주. 요인1 = 주체적 외향성(AE); 요인2 = 자기애적 신경증(NN); 요인3 = 자기중심적 적대감(SA).

주. AS = 찬사추구; ARR = 거만; AUTH = 권위; DIS = 불신; ENT = 특권의식; EXH = 과시 EXP = 착취; GF = 응대한 환상; IND = 무관심; LOE = 공감결여; MAN = 조종; NFA = 인정욕구; RA = 반응적 분노; SHM = 수치심; TS = 자극추구.

인분석만으로는 추출된 세 가지 고차요인이 어떤 하위요인을 의미하는지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해석의 명료함을 위해 연구자의 주관에 개입되었다(임경민, 김수영, 2019). 연구자는 FFNI의 요인구조를 탐색한 선행연구 결과들(Fossati et al., 2018; Sherman et al., 2015; Miller et al., 2016)을 경험적 근거로 삼아 거만, 특권의식, 조종, 자극추구의 요인1에 대한 부하를 0으로 제약하고 요인3에는 자유모수로 추정하였다. 또한, 반응적 분노와 불신은 요인2에 대한 부하를 0으로 제약하고 요인3에 대해서는 자유모수로 두었다. 나머지 이중적재를 보인 무관심, 과시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특정 부하량에 대한 제약을 가하여 목표회전을 하였다.

목표회전의 결과(표 4), 다른 요인에 묶였던 거만, 특권의식의 경우 요인3에 적절한 부하량을 가져 사전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자극추구의 경우에도 요인3에 대해 해석가능한 .37의 부하량을 가져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이중 적재로 해석하기 어려웠던 불신, 과시, 무관심의 경우에도 요인 간 부하량의 절대값 격차가 .023, .212, .002에서 각각 .292, .585, .314로 커짐으로써 요인 간 구분이 훨씬 명확해졌다. 한편, 조종의 경우 요인1

과 요인3에 걸쳐 이중적재를 가졌고, 반응적 분노의 경우 여전히 사전 가설에 위배되는 요인2에 높은 부하량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회전을 통해 모형이 사전 가설과 좀 더 유사해졌으나, 여전히 조종과 반응적 분노에 대한 명료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모형을 정제하기 위해 탐색적 구조방정식(ESEM)을 적용하였다. 하위요인 간 특성이 공유된다는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수정지수(MI)를 참고해 측정오차 간의 상관을 추정하였다. 10 이상의 MI가 총 6개 산출되었으며, 표 5에 제시되었다. 산출된 수정지수 가운데 웅대한 환상과 찬사추구, 특권의식과 거만은 선행연구에서 각각 요인1과 요인3의 동일한 고차요인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으며(Miller et al., 2013; Miller et al., 2016; Sherman et al., 2015), 본 연구에서도 하위요인 간에 상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이러한 근거에 따라 두 수정지수에 대해서만 측정오차 간 상관을 허용하였다.

MI를 반영한 결과, 최종 수정 모형의 적합도는 $\chi^2(61)=141.762$, $p<.000$; CFI=.953; TLI=.919; RMSEA=.070로 나타나 전통적 요인 분석보다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표 6). 한편, 요인구조에 있

표 5. 측정오차 간 공분산에 대한 MI 값

	구분		수정지수	수정 후 모수 기대치
웅대한 환상(GF)	↔	찬사추구(AS)	77.535	.261
조종(MAN)	↔	권위(AUTH)	27.116	.098
특권의식(ENT)	↔	거만(ARR)	24.927	.082
공감결여(LOE)	↔	무관심(IND)	21.719	.138
무관심(IND)	↔	착취(EXP)	18.987	-.011
특권의식(ENT)	↔	권위(AUTH)	14.873	-.064

표 6. 탐색적 요인분석 및 탐색적 구조방정식 최종 모형의 적합도 지수 (N=271)

모형	$\chi^2(df)$	CFI	TLI	RMSEA	SRMR
탐색적 요인분석	245.095(63)***	.894	.823	.103	.042
수정 모형 1	165.888(62)***	.939	.897	.079	.033
수정 모형 2 (최종 ESEM 분석)	141.762(61)***	.953	.919	.070	.031

주. 수정 모형 1에서 추정된 유의한 측정오차 간 상관: 웅대한 환상(GF) ↔ 찬사추구(AS).

주. 수정 모형 2에서 추정된 유의한 측정오차 간 상관: 특권의식(ENT) ↔ 거만(ARR).

주. *** $p < .001$

어서 조종과 반응적 분노는 여전히 선행연구의 결과와 다르게 각각 요인1과 요인2에 높은 부하량을 가졌다(표 4). 최종적으로 한국판 FFNI는 조종과 반응적 분노를 제외하고는 원칙도와 동일한 요인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칙도와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일부 요인에 대해서는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요인1은 찬사추구, 권위, 과시, 웅대한 환상, 조종으로 구성되었으며 하위요인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고취하기 위해 인정과 관심을 받고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고자 하는 특성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과시적 자기애(ostentatious narcissism)’로 명명하였다. 요인2는 무관심, 인정욕구, 반응적 분노, 수치심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이 외부의 긍정적 평가를 열망하고 비판, 책망 등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부정적 정서를 가진다는 점에서 ‘평가적 자기애(evaluative narcissism)’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3은 거만, 불신, 특권의식, 착취, 공감 결여, 자극추구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우월함을 추구하고 특권의식을 가진다는 점에서 ‘특권적 자기애(entitled narcissism)’로 명명하였다. 한국판 FFNI-SF에서 나타난 고차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신뢰도 분석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ESEM)을 통해 검증된 한국판 FFNI-SF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성격 차원에서 도출

표 7. 한국판 FFNI-SF의 고차요인 간 상관 (N=271)

고차요인	M	SD	α	1	2	3
1. 특권적 자기애(EN-N)	2.59	.48	.85	1.00		
2. 과시적 자기애(OS-N)	3.10	.60	.92	.47**	1.00	
3. 평가적 자기애(EV-N)	3.12	.40	.68	.43**	.18**	1.00

주. ** $p < .01$

된 FFNI-SF의 고차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특권적 자기애가 .85, 과시적 자기애가 .92, 평가적 자기애가 .68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7 혹은 .8을 좋은(good) 수준으로 평가하지만, 심리적 구성 개념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6 이상도 그런대로 괜찮은 수준(fair)으로 평가된다(Nunnally, 1978). 이러한 점에서 ‘평가적 자기애’는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

수렴 및 변별타당도

요인분석의 결과로 나타난 고차요인 구조를 바탕으로 한국판 FFNI-SF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표본(N=277)을 사용하여 해당

척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변인들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우선 성격 5요인은 FFNI 하위 요인들이 도출된 이론적 근거이며, 연구결과로 나타난 고차요인들이 얼마나 성격 5요인 관점에서 심리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과시적 자기애는 개방성($r=.38, p<.01$), 성실성($r=.46, p<.01$), 외향성($r=.53, p<.01$), 평가적 자기애는 신경증($r=.47, p<.01$)과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특권적 자기애는 친화성($r=-.37, p<.01$)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기애를 측정했던 기존 검사들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 한국판 FFNI-SF가 자기애의 특성을 얼마나 유사하게, 혹은 얼마나 다르게 측정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표 8. 한국판 FFNI-SF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 (N=277)

구분	M	SD	FFNI-SF			
			Total	EN-N	OS-N	EV-N
BFI						
Openness	9.97	3.01	.25**	.11	.39**	-.05
Conscientiousness	11.22	2.25	.22**	.05	.46**	-.13*
Neuroticism	9.22	2.88	.14*	.10	-.13*	.47**
Extraversion	10.02	2.83	.25**	.02	.53**	-.11
Agreeableness	10.90	2.18	-.20**	-.37**	.11	-.21**
NPI	15.07	6.23	.56**	.32**	.80**	-.11
HSNS	28.61	6.07	.49*	.45**	.11	.58**
PNI-G	38.93	10.72	.54**	.26**	.64**	.18**
PNI-V	40.92	17.07	.41*	.33**	.05	.63**

주. FFNI-SF = 성격 5요인 자기애 척도; EN-N = 특권적 자기애; OS-N = 과시적 자기애; EV-N = 평가적 자기애; BFI = 성격 5요인 검사; NPI = 자기애적 성격검사지; HSNS = 과민성 자기애 척도; PNI-G = 병리적 자기애 척도 응대성; PNI-V = 병리적 자기애 척도 취약성.

주. * $p<.05$ ** $p<.01$

는 자기애의 웅대한 측면을 측정하는 자기애 적 성격 검사지(NPI)와 병리적 자기애 척도의 웅대성(PNI-G), 취약한 측면을 측정하는 과민성 자기애 척도(HSNS)와 병리적 자기애 척도의 취약성(PNI-V)과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우선 FFNI-SF의 전체점수는 NPI($r=.56, p<.01$), HSNS($r=.49, p<.01$), PNI-G($r=.54, p<.01$), PNI-V($r=.41, p<.01$) 모두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세 가지 고차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과시적 자기애의 경우 NPI($r=.80, p<.01$), PNI-G($r=.64, p<.01$)과 매우 강한 정적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적 자기애의 경우 HSNS($r=.58, p<.01$), PNI-V($r=.63, p<.01$)과 높은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특권적 자기애는 NPI($r=.32, p<.01$), HSNS($r=.45, p<.01$), PNI-G($r=.26, p<.01$), PNI-V($r=.33, p<.01$) 모두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을 가졌다. 결과를 종합하면, 자기애 3요인 모형의 관점에서 자기애는 전반적으로 특권적 자기애를 핵심 특성으로 가지며, 과시적 및 평가적 자기애가 각각 웅대성과 취약성을 발현시키는 부차적 특성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공존타당도

자기애와 관련 있는 여러 심리적 특성 가운데 자존감을 외적 준거로 설정해 자기애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특별히, 자존감을 명시적인 자존감 수준(RSES)과 내면의 자존감 안정성 수준(SSES)으로 구분하여 자기애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FFNI-SF의 전체점수는 명시적 자존감 수준($r=.10, m$)과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존감 안정성($r=-.19, p<.01$)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 전반적인 자기애가 불안정한 자존감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세 고차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명시적 자존감은 과시적 자기애($r=.45, p<.01$)와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평가적 자기애($r=-.41, p<.01$)와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으며 특권적 자기애와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r=-.01, m$). 반면 자존감 안정성 수준의 경우 과시적 자기애($r=.10, m$)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평가적 자기애($r=-.54, p<.01$) 및 특권적 자기애($r=-.12, p<.05$)와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한편, 기존 척도들과 자존감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웅대성은 명시적 자존감과 정적 상관(NPI, $r=.62, p<.01$; PNI-G, $r=.16,$

표 9. 자기애와 자존감의 관계 (N=277)

구분	M	SD	FFNI-SF			NPI	HSNS	PNI-G	PNI-V	
			Total	EN-N	OS-N					EV-N
RSES	37.56	7.62	.10	-.01	.45**	-.41**	.62**	-.28**	.16**	-.47**
SSES	30.83	8.49	-.19**	-.12*	.10	-.54**	.28**	-.44**	-.20**	-.69**

주. FFNI-SF = 성격 5요인 자기애 척도; EN-N = 특권적 자기애; OS-N = 과시적 자기애; EV-N = 평가적 자기애; NPI = 자기애적 성격검사지; HSNS = 과민성 자기애 척도; PNI-G = 병리적 자기애 척도 웅대성; PNI-V = 병리적 자기애 척도 취약성; RSES = Rosenberg 자존감 척도; SESS = 자존감 안정성 척도.

주. * $p<.05$ ** $p<.01$

$p < .01$)을 보였으나 자존감 안정성과는 혼재된 결과는 나타냈다(NPI, $r = .28, p < .01$; PNI-G, $r = -.20, p < .01$). 취약성의 경우 명시적 자존감과 부적 상관(HSNS, $r = -.28, p < .01$; PNI-V, $r = -.47, p < .01$)을 가졌으며, 자존감 안정성과의 관계에서도 부적 상관(HSNS, $r = -.44, p < .01$; PNI-V, $r = -.69, p < .01$)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존감과의 관계에서 자기에의 핵심 및 부차적 특성들이 작동되는 기제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성격 5요인 관점에서 새롭게 개발된 성격 5요인 자기에 척도(FFNI-SF)의 타당화를 통해 국내 대학생의 자기에 성격 특성의 요인구조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FFNI-SF 15개 하위요인(facet)에 대한 성격 차원의 고차요인 구조를 확인하였다. FFNI-SF는 문항 수가 많고 서로 높은 상관을 가졌으며, 하위요인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웅대성-취약성의 유형으로 구분되는 다소 복잡한 구조를 가져 전통적인 요인분석으로는 정밀한 요인추출이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분석방식을 참고하여 15개 하위요인에 대하여 문항묶음을 적용하였으며(Fossati et al., 2018; Miller et al., 2016; Rogoza et al., 2021), 목표회전(target rotation)과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ESEM)을 실시하여 FFNI-SF의 3요인에 대한 내적구조를 정교하게 분석하였다. 또한, 하위요인 추출의 바탕이 된 성격 5요인(BFI), 기존의 자기에를 측정하는 도구들(NPI, HSNS, PNI), 그리고 자존감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수렴, 변별 및

공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판 FFNI-SF를 구성하는 15개의 하위요인에 대해 목표회전과 ESEM을 실시한 결과, 세 가지 고차요인이 도출되었으며 모형 적합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에 3요인 모형(Three-Factor Model of Narcissism)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Crowe et al., 2019; Krizan & Herlache, 2018; Miller & Campbell, 2008). 본 연구에서 확인된 요인구조는 Sherman 등(2015)이 개발한 FFNI-SF와 전반적으로 유사했으나 하위요인 중 조종(MAN)과 반응적 분노(RA)는 원척도의 적대감에 해당하는 요인3이 아닌 각각 요인1과 요인2에 부하하였다. 요인1은 자신의 자존감을 고취하기 위해 인정을 바라고 타인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고자 하는 특성에 초점이 맞춰져 ‘과시적 자기에(ostentatious narcissism)’로 명명하였으며, 요인2는 외부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갈망하며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여 부정정서를 보인다는 점에서 ‘평가적 자기에(evaluative narcissism)’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3은 대인관계 속에서 타인과 비교해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고자 하고 특권의식을 가진다는 점에서 ‘특권적 자기에(entitled narcissism)’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요인구조의 차이는 분석과정에서 고차요인의 구조를 명료하게 확인하기 위해 개별문항에 대한 탐색보다는 문항묶음을 적용한 것을 비롯하여(임경민, 김수영, 2019)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종의 경우 Miller 등(2016)의 연구에서는 요인3에 해당하는 적대감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1

인 과시적 자기애에 좀 더 높은 부하량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폴란드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FFNI-SF 요인분석과 동일한 결과였으며(Rogoza et al., 2021), Sherman 등(2015)의 연구에서도 조종이 요인1과 요인3에 걸쳐 이중적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하위요인의 불안정성에 대해 재고하도록 한다. 문항 내용의 특성을 살펴보면 조종을 측정하는 일부 문항 내용이 ‘나는 무슨 일이든 내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일은 쉽다’ 등 타인을 설득하거나 호소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장된 신념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성격 5요인 중 외향성의 하위요인인 주장성의 전형적인 특성인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욕구 및 사회적 지배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McCrae & Costa, 1987; Rogoza et al., 2021). 또한,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규범적으로 사회적 조화를 강조하고 체면과 인정이 중시되는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강하게 작용한다(Lalwani, Shavitt, & Johnson, 2006). 이러한 점에서 적대감의 하위요인이었던 조종의 문항 내용을 자신에게 좀 더 긍정적이고 웅대한 측면으로 해석하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응적 분노의 경우에도 원칙도에서는 적대감으로 구분되었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평가적 자기애에 포함되어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것은 Glover 등(2012)의 연구에서 FFNI 하위요인을 구성할 당시, 반응적 분노가 성격 5요인 가운데 신경증의 하위요인에서 나온 것임을 고려했을 때 원칙도의 고차요인인 신경증에 해당하는 평가적 자기애와 더 큰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자기애적 취약성을 보이는 한국인들의 적대감, 분노경

험, 분노억제 수준이 웅대성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박세란 등, 2005; 백승혜, 현명호, 2008;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취약성이 자기해석을 외부에 의존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Jauk et al., 2021)과 자기애 3요인 모형에서 취약성을 발현시키는 부차적 특성이 신경증이었다는 점(Miller et al., 2016)을 미루어 볼 때, 국내에서는 타인의 평가에 대해 보이는 부정적 반응으로서 분노가 대인관계적 특성보다는 개인내적 취약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FFNI-SF를 통해 자기애의 구성개념을 살펴보았을 때, 자기애 3요인 모형의 요인구조가 모든 문화권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문화적 영향으로 하위요인의 구성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도출된 요인을 바탕으로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통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특권적 자기애와 과시적 자기애는 .8 이상의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평가적 자기애는 .6 이상의 괜찮은 수준이지만 내적 일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Nunnally, 1978). 그 이유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응적 분노(RA)가 원칙도에서는 자기중심적 적대감에 포함된 것과 달리 국내 표본에서는 평가적 자기애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도 반응적 분노를 제외한 하위요인 문항들로 내적 합치도를 산출했을 때 값이 .86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평가적 자기애 요인의 내적 일관성이 낮게 나온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새로운 표본을 대상으로 FFNI-SF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 검증을 위해 성격 5요인(BFI) 및 기존의 자기애 측정도구(NPI, HSNS,

PNI)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FFNI-SF 요인들이 성격 5요인 모형(FFM)의 하위요인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성격 5요인(BFI)와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과시적 자기애는 외향성과 높은 수준의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개방성, 성실성과도 적절한 수준의 정적상관을 보였다. 평가적 자기애의 경우 신경증과 정적상관, 친화성과는 약한 부적상관을 나타냈으며, 특권적 자기애의 경우에는 친화성과만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각 고차요인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의 기원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과시적 자기애를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은 FFM의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에서 추출된 것이었으며, 평가적 자기애는 신경증과 친화성에서 추출된 하위요인, 그리고 적대적 자기애 역시 친화성에서 추출된 하위요인들로 구성되었다(Glover et al., 2012; Miller et al., 2016; Sherman et al., 2015).

이어서 자기애 측정 도구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FFNI-SF의 세 고차요인이 자기애 기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우선 과시적 자기애는 웅대한 측면을 측정하는 NPI, PNI-G와 높은 수준의 정적상관을 가졌으며, 취약성을 측정하는 척도와는 상관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가적 자기애는 취약한 측면을 측정하는 HSNS, PNI-V와 정적상관을, 웅대성을 측정하는 척도와는 유의하지 않거나 미약한 수준의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한편 특권적 자기애는 모든 자기애 척도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종합하면, 특권적 자기애는 웅대성과 취약성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자기애의 핵심 특성(core feature)이며, 과시적 자기애와 평가적 자기애가 각각 웅대성과 취약성을 발현시키는 부차적 특성

(peripheral feature)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Miller 등(2016)이 제시한 자기애 3요인 모형(the Three-Factor Model of Narcissism)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며, 표현형에 따라 구분되던 자기애를 보다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또한, 각 특성이 발현되는 정도에 따라서 정상과 병리의 연속선상에서 자기애를 이해할 수 있음을 함께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애와 관련 있는 심리적 특성인 자존감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공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우선 명시적 자존감 수준(RSES)과 기존 척도와는 관계를 비교하였을 때, 웅대성 척도(NPI, PNI-G)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취약성 척도(HSNS, PNI-V)와 유의한 부적상관을 가졌다. 이러한 결과는 웅대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고 자기 평가가 긍정적이지만, 취약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고 자기개념이 부정적이라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Campbell et al., 2002). 다음으로 자존감에 대해 자기애 기저에 어떤 역동이 있는지를 3요인과의 관계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과시적 자기애와 정적상관, 평가적 자기애와 부적상관을 가졌으며 특권적 자기애와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iller 등(201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자기애 3요인 모형의 관점에서 자기애 하위유형에 따라 자존감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그 기저에 작동하는 각 유형의 고유한 특성 때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기상이 위협되는 상황에서 웅대한 성향은 자기고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부의 칭찬과 인정을 갈망하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신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취약한 성향은 인정에 대한 욕구는 강하지만 그것을 충족하기 위한 적극적 태도보다 수치심, 분노, 우울 등의 강한 부정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세란 등, 2005; 백승혜, 현명호, 2008; 최정인 등, 2012; Buffardi & Campbell, 2008; Campbell et al., 2002; Hart, Richardson, Tortoriello, & Breeden, 2019). 이러한 점에서, 자기에 3요인 모형은 자기에 성향자의 명시적 자존감 기저에 자기에의 핵심특성인 특권적 자기에보다는 개인내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부차적 특성인 과시적 자기에와 평가적 자기에가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자존감 안정성 수준(SSES)은 척도에 따라 일부 상충된 관계를 보였다. 우선 자기에적 취약성의 경우 모든 척도에서 일관적으로 부적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웅대성 집단보다 취약성 집단이 훨씬 더 불안정한 자존감을 특성으로 지닌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최정인 등, 2012; Zeigler-Hill et al., 2010). 그러나 자기에적 웅대성의 경우 NPI는 약한 정적상관, PNI-G은 약한 부적상관을 보여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NI-G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불안정하다는 것이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으나(홍초롱, 권석만, 2016), 이러한 결과는 해당 척도가 자기에의 부적응적이고 역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해 웅대성보다 오히려 취약성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척도의 한계를 의미하기도 한다(Miller et al., 2016). 또한, 일부 선행연구에서 자기에적 웅대성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자존감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Giacomin & Jordan, 2016; Zeigler-Hill & Besser, 2013). 기저의 역동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에 3요인을 바탕으로 자존감 안정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가적 자기에와 특권적 자기에 자존감 안정성과 부적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시적 자기에와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핵심특성인 특권적 자기에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자기에 성향의 자존감이 불안정할 수는 있지만, 웅대성의 경우 과시적 자기에가 완충 역할을 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존감을 가질 수 있으며 취약성의 경우 평가적 자기에가 자존감의 불안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웅대한 성향이 실패의 경험이나 부정적 피드백 이후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고양적 방식으로 행동하는 반면, 취약한 성향은 이러한 평가를 내부로 귀인하여 자존감이 크게 낮아지고 공격성, 분노와 같은 부정정서를 동반한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하다(김방글, 오수성; 2009; 안연옥, 김병석, 김재철, 2014; 최정인 등, 2012). 종합하면, 자기에의 핵심 특성이 병리적일지라도 부차적 특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따라 어느 정도 건강한 특성들로 표현되거나 오히려 병리적 특성을 더 악화시키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새롭게 개발된 자기에 측정 도구 FFNI-SF의 요인구조를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ESEM)을 통해 확인하고 수렴, 변별 및 공존타당도 검증을 통해 국내에서도 해당 척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자기에의 고차원적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자기에의 정의와 구성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실용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이 자기에의 두 하위유형의 존재와 이들이 상이한 특성을 보이는 질적으로 구분된 개념이라는 것을 이론적이고 경험적으로 입증했으나(Cain et al., 2008; Miller & Campbell,

2008) 이들을 하나의 자기에로 설명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했으며, 특히 임상 장면에서는 차원적 특성을 가진 성격장애와 관련하여 자기에의 웅대한 측면만 조명하여 두 유형을 모두 포함할 만한 기준이 필요했다(Miller et al., 2017). FFNI-SF는 자기에의 웅대성과 취약성을 모두 포괄하면서도 이들이 공유하는 핵심 특성을 밝히는 자기에 3요인 모형(the Three-Factor Model of Narcissism)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척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자기에 구성개념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Glover et al., 2012; Sherman et al., 2015; Miller et al., 2016). 그러나 국내에서는 최근 박창현과 장유진(2021)이 메타 분석을 통해 자기에 연구의 흐름과 논쟁을 정리한 것 외에는 다차원적인 자기에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FFNI-SF의 고차원적 요인구조는 국내에서도 자기에가 핵심 특성으로 특권적 자기에를 공유하면서 과시적 자기에와 평가적 자기에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발현될 수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하위유형에 따라 자존감이 다르게 나타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성격 요인을 밝혀냄으로써 자기에 기저에 있는 성격 역동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FFNI-SF 척도를 상담 장면에서 활용하는 것도 실용적 함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기에 성향을 지닌 내담자들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의 어려움을 단순히 웅대성-취약성 수준에서 살펴보는 것이 아닌 기저의 역동을 살펴보는 것은 문제의 근원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 근본적인 원인을 깊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내담자를 잘 이해하도록 하고 호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방향

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사례개념화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가 될 수 있다(Eells, 2011). 이러한 측면에서 FFNI-SF를 통해 자기에 성향의 내담자를 평가하는 것은 이들이 가지는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개입을 통해 삶을 더욱 적응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요인구조의 명료성과 해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문항묶음을 적용한 하위요인 단위에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데 있어 개별 문항이 설명하고자 하는 구인에 대해 가지는 고유한 특성과 수행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임경민, 김수영, 2019). 추후 연구에서는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좀 더 반영하여 문항 내용을 수정하고, 60문항 단위에서 요인분석을 실시하면 국내에 적합한 문항들로 척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문항들이 구성하는 하위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자기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화적 요인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FFNI-SF의 요인구조 및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함에 있어 국내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점에서 척도의 요인구조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고차요인이 원척도와 상이한 구조를 보이는데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과 사회경제적 수준을 대표하는 일반 성인으로 대상을 확장시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에 성향이 정상과 병리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추후 임상군과 통제집단을 비교하여 병리적 수준에서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명료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리 집단의 구분을 위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도 척도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구성개념들이 측정되어 참가자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과 실제 모습 간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기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보고와 관찰자 평정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었으며(Robbins & Dupont, 1992), 특히, 문항 내용이 자기존중, 자기만족, 타인으로부터의 존중, 타인과의 관계적 측면 등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경우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크게 작용하여 문항 내용에 대한 반응이 다소 왜곡될 수 있다(Fisher & Katz, 2000). 체면 문화가 만연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으며 연구 결과의 부정확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이나 생활 속 관찰, 주변인의 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기에 성향의 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존감 뿐만 아니라 자기개념 명료성이나 우울, 분노, 공격성 등의 부정정서, 대인관계나 사회적 기능 등 자기에 성향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을 탐색하고 그 기저에 성격 역동을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 자기에 유형에 따라 자기개념, 정서조절, 대인관계, 사회적 적응 등의 영역에서 결핍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Ahktar & Thomson, 1982; Ronningstam, 2005). 그러나 표현되는 자기에 유형마다 문제 영역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준이 매우 다양하다(백승혜, 현명호, 2008; 이준득 등, 2007; 정남운, 2001a).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자기에적 성향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성격 구조를 탐색함으로써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자기

애로 양립할 수 있음을 밝히고 나아가 자기에 3요인 모형의 이론적 토대를 경험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김방글, 오수성 (2009). 실패 경험이 외현적,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4), 1069-1083.
-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서울: 학지사.
- 김지현, 김복환, 하문선 (2011). 간편형 한국어 BFI(Big Five Inventory) 타당화 연구. 인간이해, 32(1), 47-65.
-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외현적·내현적 자기에의 자기평가와 정서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255-266.
- 박창현, 장유진 (2021). 자기에의 핵심 특성과 표현 차이에 관한 메타 분석: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1), 417-448.
- 백승혜, 현명호 (2008). 내현적,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수준, 및 분노 표현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1001-1017.
- 안연옥, 김병석, 김재철 (2014). 대학생의 자기에와 공격성 간의 관계: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 자기개념 명료성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5(6), 2451-2470.
- 이순묵, 윤창영, 이민형, 정선호 (2016). 탐색적

- 요인분석: 어떻게 달라지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1), 217-255.
-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내현적 ·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자기개념 명료성과 부정적 정서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2), 463-477.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95(1), 277-290.
- 양진원, 권석만 (2016). 병리적 자기에 성향자의 응대성과 취약성에 따른 정서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5(1), 215-242.
- 이지현, 김수영 (2016). 문항묶음: 원리의 이해와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327-353.
- 임경민, 김수영 (2019). 요인분석에서 목표회전의 적용 가능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8(3), 377-400.
- 장재원, 신희천 (2011).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635-654.
- 정남운 (2001a). 과민성 자기에 척도 (the 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93-216.
- 정남운 (2001b). 자기애적 성격검사의 요인구조와 아이젠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과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21-237.
- 최정인, 이훈진, 이준득 (2012). 평가적 피드백과 생활사건에 따른 외현적,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자존감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2), 631-639.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수정 (2016). 자기애적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 홍초롱, 권석만 (2016). 병리적 자기애와 자존감,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양식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2(2), 145-161.
- 황선정, 조성호 (2016). 병리적 자기애의 하위 유형별 인지 위계: 구성주의 레퍼토리 그리드 기법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3), 659-694.
- Ahkta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 12-2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ack, M. D., Küfner, A. C., Dufner, M., Gerlach, T. M., Rauthmann, J. F., & Denissen, J. J. (2013). Narcissistic admiration and rivalry: Disentangling the bright and dark sid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5(6), 1013-1037.
- Bovaird, J. A., & Koziol, N. A. (2012). Measurement models for ordered-categorical indicators. In R. H. Hoyle (Ed.), *Handbook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p.495-511). NY: Guilford Press.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 & Research*, 21(2), 230-258..
- Brown, R. P., Budzek, K., & Tamborski, M. (2009). On the meaning and measure of

- narcissis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7), 951-964.
- Buffardi, L. E., & Campbell, W. K. (2008). Narcissism and social networking web si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10), 1303-1314.
- Cain, N. M., Pincus, A. L., & Ansell, E. B. (2008). Narcissism at the crossroads: Phenotypic description of pathological narcissism across clinical theory, social/personality psychology, and psychiatric diagno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4), 638-656.
- Campbell, W. K., Rudich, E. A., & Sedikides, C. (2002). Narcissism, self-esteem, and the positivity of self-views: Two portraits of self-lo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3), 358-368.
- Cooper, M. D. (2000). Towards a model of safety culture. *Safety Science*, 36(2), 111-136.
- Crowe, M. L., LoPilato, A. C., Campbell, W. K., & Miller, J. D. (2016). Identifying two groups of entitled individuals: Cluster analysis reveals emotional stability and self-esteem distinction.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30(6), 762-775.
- Crowe, M. L., Lynam, D. R., Campbell, W. K., & Miller, J. D. (2019). Exploring the structure of narcissism: Towards an integrated solution. *Journal of Personality*, 87(6), 1151-1169.
- Crowe, M. L., & Miller, J. D. (2017). Five-Factor Narcissism Inventory. In V. Zeigler-Hill & T. K. Shackelford (Eds.), *Encyclopedia of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New York: Springer.
- Eells, T. D. (Ed.). (2011). *Handbook of psychotherapy case formulation*. Guilford Press.
- Eksi, F. (2016). The short form of the Five-Factor Narcissism Inventory: Psychometric equivalence of the Turkish version. *Educational Sciences: Theory & Practice*, 16(4), 1081-1096.
- Fisher, R. J., & Katz, J. E. (2000). Social desirability bias and the validity of self reported values. *Psychology & Marketing*, 17(2), 105-120.
- Fossati, A., Somma, A., Borroni, S., & Miller, J. D. (2018). Assessing dimensions of pathological narcissism: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hort form of the Five-Factor Narcissism Inventory in a sample of Italia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00(3), 250-258.
- Giacomin, M., & Jordan, C. H. (2016). The wax and wane of narcissism: Grandiose narcissism as a process or state. *Journal of Personality*, 84(2), 154-164.
- Glover, N., Miller, J. D., Lynam, D. R., Crego, C., & Widiger, T. A. (2012). The Five-Factor Narcissism Inventory: A five-factor measure of narcissistic personality tra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4(5), 500-512.
- Hart, W., Richardson, K., Tortoriello, G. K., & Breeden, C. J. (2019). Revisiting profiles and profile comparisons of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on self-presentation tactic us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51, 109523.
- Heine, S. J., & Hamamura, T. (2007). In search of East Asian self-enhance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1(1), 4-27.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e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 Murray's Narciss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4), 588-599.
- Horn, J. L. (1965). A rationale and test for the number of factors in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0(2), 179-185.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Jauk, E., Breyer, D., Kanske, P., & Wakabayashi, A. (2021). Narcissism in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cultur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7, 110716.
- John, O. P., & Srivastava, S. (1999). *The big 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In L. A. Pervin & O. P. Joh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pp. 102-138). New York: Guilford.
- Kang, H. C. (2013). A guide on the use of factor analysis in the assessment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3(5), 587-594.
- Kernberg, O. F. (1998). Pathological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Theoretical background and diagnostic classification. In E. Ronningstam (Ed.), *Disorders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pp. 29-51).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Kohut, H., & Wolf, E. (1978). The disorders of the self and their treatment: An outlin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59, 413-425.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rizan, Z., & Herlache, A. D. (2018). The narcissism spectrum model: A synthetic view of narcissistic persona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22(1), 3-31.
- Lalwani, A. K., Shavitt, S., & Johnson, T. (2006). What is the relation between cultural orientation and socially desirable respon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1), 165-178.
- Lee, S. K., Benavides, P., Heo, Y. H., & Park, S. W. (2014). Narcissism increase among college students in Korea: A cross-temporal meta-analysis (1999-2014).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3(3), 609-625.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McCrae, R. R., & Costa, P. T. J. (1987). Validation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cross instruments and observ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81-90.
- Merenda, P. F. (1997). A guide to the proper use of factor analysis in the conduct and reporting of research: Pitfalls to avoid.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0(3), 156-164.
- Miller, J. D., & Campbell, W. K. (2008). Comparing clinical and social-personality conceptualization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76(3), 449-476.
- Miller, J. D., Few, L. R., Wilson, L., Gentile, B.,

- Widiger, T. A., MacKillop, J., & Campbell, W. K. (2013). The Five-Factor Narcissism Inventory (FFNI): A test of the convergent, discriminant, and incremental validity of FFNI scores in clinical and community samples. *Psychological Assessment, 25*(3), 748-758.
- Miller, J. D., Gentile, B., & Campbell, W. K. (2013). A test of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Five-Factor Narcissism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5*(4), 377-387.
- Miller, J. D., Hoffman, B. J., Gaughan, E. T., Gentile, B., Maples, J., & Keith Campbell, W. (2011).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A nomological network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79*(5), 1013-1042.
- Miller, J. D., Lynam, D. R., & Campbell, W. K. (2016). Rejoinder: A construct validity approach to the assessment of narcissism. *Assessment, 23*, 18-22.
- Miller, J. D., Lynam, D. R., Hyatt, C. S., & Campbell, W. K. (2017). Controversies in narcissism.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13*(1), 291-315.
- Miller, J. D., Lynam, D. R., McCain, J. L., Few, L. R., Crego, C., Widiger, T. A., & Campbell, W. K. (2016). Thinking structurally about narcissism: An examination of the Five-Factor Narcissism Inventory and its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30*(1), 1-18.
- Millon, T. (1998). DSM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Historical reflections and future directions. In E. Ronningstam (Ed.), *Disorders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pp. 75-101).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Morf, C., & Rhodewalt, F. (2001). Unraveling the paradoxes of narcissism: A dynamic self-regulatory processing model. *Psychological Inquiry, 12*, 177-196.
- Murray, H. A. (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unnally, J. C. (1978). An Overview of Psychological Measurement. In B. B. Wolman (Eds.), *Clinical Diagnosis of Mental Disorders* (pp. 97-146). Boston, MA: Springer.
- Park, S. W., & Colvin, C. R. (2015). Narcissism and other derogation in the absence of ego 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83*(3), 334-345.
- Pett, M., Lackey, N. & Sullivan, J. (2003). *Making sense of factor analysi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Inc.
- Pincus, A. L., Ansell, E. B., Pimentel, C. A., Cain, N. M., Wright, A. G., & Levy, K. N. (2009). Initial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the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21*(3), 365-379.
- Pincus, A. L., & Lukowitsky, M. R. (2010). Pathological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6*, 421-446.
- Raskin, R., & Hall, C. S. (1981).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lternative form reliability and further evidence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5*(2), 159-162.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 Social Psychology*, 54(5), 890-902.
- Rhodewalt, F., & Tragakis, M. W. (2003). Self-esteem and self-regulation: Toward optimal studies of self-esteem. *Psychological Inquiry*, 14(1), 66-70.
- Robbins, S. B., & Dupont, P. (1992). Narcissistic needs of the self and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4), 462-467.
- Rogoza, R., Ciecuch, J., Strus, W., & Kłosowski, M. (2021). Investigating the structure of the Polish Five Factor Narcissism Inventory: Support for the three-factor model of narcissism. *Psychological Assessment*, 33(3), 267-272.
- Rohmann, E., Neumann, E., Herner, M. J., & Bierhoff, H.-W. (2012).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Self-construal, attachment, and love in romantic relationships. *European Psychologist*, 17(4), 279 - 290
- Ronningstam, E. (2005). *Identifying and understanding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dikides, C., Rudich, E. A., Gregg, A. P., Kumashiro, M., & Rusbult, C. (2004). Are normal narcissists psychologically healthy?: Self-esteem matt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3), 400-416.
- Sherman, E. D., Miller, J. D., Few, L. R., Campbell, W. K., Widiger, T. A., Crego, C., & Lynam, D. R. (2015). Development of a short form of the Five-Factor Narcissism Inventory: the FFNI-SF. *Psychological Assessment*, 27(3), 1110-1116.
- Smith, G. T., McCarthy, D. M., & Zapsolski, T. C. (2009). On the value of homogeneous constructs for construct validation, theory testing, and the description of psychopathology. *Psychological Assessment*, 21(3), 272-284.
- Stucke, T. S., & Sporer, S. L. (2002). When a grandiose self-image is threatened: Narcissism and self concept clarity as predictors of negative emotions and aggression following ego 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70(4), 509-532.
- Thomas, K. M., Wright, A. G. C., Lukowitsky, M. R., Donnellan, M. B., & Hopwood, C. J. (2016). Evidence for the criterion validity and clinical utility of the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Correction. *Assessment*, 23(2), 262-263.
- Tyler, I. (2007). From 'the me decade' to 'the me millennium': The cultural history of narcissism.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Studies*, 10(3), 343-363.
- Weiss, B., & Miller, J. D. (2018). Distinguishing between grandiose narcissism, vulnerable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A. D. Hermann, A. B. Brunell & J. D. Foster (Eds.), *Handbook of trait narcissism: Key advances, research methods, and controversies* (pp. 3-13). Springer.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0-597.
- Wright, A. G., & Edershile, E. A. (2018). Issues

- resolved and unresolved in pathological narcissism.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21, 74-79.
- Wright, A. G., Lukowitsky, M. R., Pincus, A. L., & Conroy, D. E. (2010). The higher order factor structure and gender invariance of the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Assessment*, 17(4), 467-483.
- Zeigler-Hill, V., & Besser, A. (2013). A glimpse behind the mask: Facets of narcissism and feelings of self-worth.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5(3), 249-260.
- Zeigler-Hill, V., Myers, E. M., & Clark, C. B. (2010). Narcissism and self-esteem reactivity: The role of negative achievement event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4(2), 285-292.
- Zwick, W. R., & Velicer, W. F. (1986). Comparison of five rules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components to retain. *Psychological Bulletin*, 99(3), 432-442.

원 고 접 수 일 : 2021. 03. 25

수정원고접수일 : 2021. 05. 24

게 재 결 정 일 : 2021. 06. 15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Five Factor Narcissism Inventory-Short Form: Supporting the Three-Factor Model of Narcissism

Sungryung Kim

Ki-Hak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Student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and explore the factor structure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Five-Factor Narcissism Inventory-Short Form (FFNI-SF), a measure developed to assess the constructs of narcissism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conducted on data from 271 undergraduates. Next, convergent, discriminant, and concurrent validity were verified in a separate sample of 277 undergraduat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FFNI-SF was best represented by 3 factors: Entitled Narcissism (EN-N), Ostentatious Narcissism (OS-N), and Evaluative Narcissism (EV-N). These factors manifested convergent and divergent relationships with measures of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While EN-N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all narcissism measurements, OS-N and EV-N had positive correlation only with grandiosity and vulnerability, respectively. Concurrent validity was further analyzed, revealing that different components of the FFNI-SF manifested different relationships with self-esteem, indicating a potential underlying association between narcissism and self-esteem.

Key words : FFNI-SF, narcissism, Three-Factor Model of Narcissism, grandiosity, vulnerability, self-esteem, ESEM

부 록

한국판 FFNI-SF의 요인과 문항 내용

고차요인	하위요인	문항 내용
과시적 자기에	찬사추구	나는 매우 야망이 있다
		나는 성공에 대한 욕구가 크다
		나는 최고가 되는 것을 열망한다
		나는 성공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권위	나는 리더십을 쉽게 발휘할 수 있다
		나는 권위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편하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 지시와 권위를 잘 따른다
		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편이다
	과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에서 큰 기쁨을 느낀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속한 집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좋다
웅대한 환상	나는 종종 언젠가 유명해질 날에 대해 공상한다	
	나는 종종 큰 성공과 권력을 갖는 것을 상상한다	
	나는 엄청나게 성공하는 것을 공상하지 않는 편이다	
	언젠가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조종	나는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에 능숙하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도록 조종할 수 있다	
	나는 무슨 일이든 내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일은 쉽다	
평가적 자기에	무관심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의치 않다
		나는 남들의 비판에 무관심한 편이다
	인정욕구	나는 나에게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거의 신경쓰지 않는다
		나는 종종 나에게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나는 안정적인 자아감 (자기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내가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다

한국판 FFNI-SF의 요인과 문항 내용 (계속)

고차요인	하위요인	문항 내용
평가적 자기애	반응적 분노	나는 남들에게 비판 받는 것이 싫어서, 비판을 당했을 때 감정을 주체할 수 없다
		나는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면 때때로 화가 치밀어 오른다
		나는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하면 매우 화가 난다
수치심	수치심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을 때 굉장히 화가 난다
		내가 무언가에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치욕스러움을 느낀다
		남들 앞에서 흑평을 당하는 것은 끔찍하다
거만	거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수치스럽다
		다른 사람 앞에서 실수를 하면 명청하다고 느낀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너무 자랑하는 편이라고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모두 사실이다
불신	불신	나는 내 수준에 맞는 사람과만 어울린다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나는 우월한 사람이다
특권의식	특권의식	남들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의문이 든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정직할 것이라 믿는다
		나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특권적 자기애	특권적 자기애	나는 종종 남들이 나에게 진실 전부를 말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규칙이 적용되는 만큼 나에게도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착취	착취	불공평해 보일 수 있겠지만, 나는 특별한 대우, 특권,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
		나는 특별한 편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나가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괜찮다
공감결여	공감결여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 때때로 다른 사람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기꺼이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 있다
자극추구	자극추구	나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대체로 다른 사람들의 불행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
		나는 동정심이 많은 편은 아니다
자극추구	자극추구	나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아도 슬프지 않다
		나는 쾌감을 느끼기 위해 거의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나는 무모하게 행동하는 면이 있다
자극추구	자극추구	재미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칠 위험도 감수할 것이다
		나는 위험할 가능성이 높거나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을 즐긴다